

26일 Market Index			
코스피	6475.63	코스닥	1203.84
	(-0.18)		(+29.53)
금리 (연이자율)	3.496	환율 (원/달러)	1476.80
	(+0.038)		(-4.20)

metro 경제



반도체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신뢰' 깨지나

내치 복귀한 李 에너지·부동산 등 민생 현안 챙긴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

노조, 임금·성과급 제도개선 요구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 돌입 생산차질 땀 데이터센터 공급병목 車·스마트폰 등 전방산업에 영향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WHCD)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 후, 비밀경호국(USSS)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을 대피시키고 있다. /AP·뉴시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가 현실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단기 생산 차질보다 주요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가 중장기 핵심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DS부문을 중심으로 약 7만4000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로, 앞서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약 4만 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로이더통신 등 외신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메모리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공급 병목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자동차·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닛케이아시아 역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생산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회 영향으로 일부 라인 가동률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파운드리외의 경우 기흥 S1과

화성 S3 라인 가동률이 각각 큰 폭으로 낮아졌고, 메모리 생산 역시 일정 수준 감소했다는 노조측 설명이다. 다만 회사측 공식 확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파업의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파업 당시에는 참여 인원이 전체 노조원의 약 15% 수준에 그치며 대체 근무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 파업은 참여 인원이 3만~4만 명, 전체의 30~4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파업 현실화 시 글로벌 공급 차질 규모가 D램 3~4%, 낸드 2~3%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중동전쟁 2개월... 美-이란 2차 협상 불발

이란, 파키스탄 회담 후 출국 소식에 트럼프 "18시간 비행 할 필요 없어"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후속)협상이 또 성사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또 로켓 포격 등을 퍼부었다. 이는 헤즈볼라와의 휴전 연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할 예정이던 대표단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좀 전까지 참모진이 출발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기 위

해 18시간이나 비행할 필요 없다'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무산 언급은 이란 측이 파키스탄에서 양자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왔다.

또 "그들(이란)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대화를 위해 앉아 있으려고 18시간이나 비행기타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당초 2차 협상을 위해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말에 파키스탄이 슬라마바드로 보낼 계획이 있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치에 복귀한다. 일단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여



전한 만큼 핵심 품목 수급 불안 등 민생 점검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언급하는 등 비거주투기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SNS 정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장 큰 현안은 중동 전쟁 대응이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납사) 등 에너지·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할 전망이다.

5박6일 인도·베트남 순방 마무리 비거주 투기 등 '부동산 SNS' 시동

강홍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수급 위기에 충분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아스팔트 등 일부 원자재는 수급 위험 수준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강실장은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과 관련,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평가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수급 상황만이 아니라 한 달, 세 달 후 상황도 예측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어, 청와대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강실장은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5월 중 작년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면서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도 장특공 손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향한 'SNS 정치'를 계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 전날인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구트위터)를 통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 폐지 의제를 꺼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커버스토리

조합원 사망사고 항의... 9000명 집결

화물연대 '분노'

BGF로지스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집행위원회 '투쟁본부' 체제 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이하 화물연대)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의 갈등 도중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오후 경남 진

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90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해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고인의 명예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사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이 사고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원청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결의대회에 나선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곧 숨진 조합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열사가 쏟아낸 선혈은 45만 화물 노동자의 분노로 모였고,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진군의 노래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측의 대응에 대해 "열사가 돌아간 바로 그날 사측은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 처분을 신청했다"며 "어렵게 시작된 교섭마저 부정하며 말을 바꾸는 사측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향후 투쟁 방침을 구체화한 '투쟁지침 1호'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 집행 위원회는 즉시 '지역본부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메트로 한줄뉴스



▲李 대통령 매점매석 겨냥 "혼자 잘 살면 뭘 재미? 같이 살아야" 지적
▲장동혁 "美서 만난 인사, 차관보나 그 이상... '직할 부풀리기' 아니" /사진 뉴시스

▲법원, 장동혁 따라다니 친(親)여 유튜브에 100m 접근금지 명령 판결
▲박준태 "장동혁 지도부 향한 내부 비판 선 넘어... 선거에 도움 안 돼"

▲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할 것...국조위원장·법사위원장 역할에 집중"
▲野, 국회의원 재보선 구인난...지지율 하락에 10곳 중 9곳 인물 없어